

꽃가루의 습격, 숨쉬기가 힘들다

광주·전남 지역 위험지수 ‘높음’ 소나무 등 꽃가루 날림시기 늘고 밤나무·은행나무 등 농도 치솟아

봄철 알레르기 일으키는 꽃가루 농도(일정 면적당 꽃가루 수)가 예년보다 크게 높아진 데다,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한 날림 시기 변동으로 여러 수목이 동시다발적으로 꽃가루를 뿜어내면서 지역민 건강 관리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4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꽃가루 농도 위험지수는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높음’ 단계를 기록했다.

앞서, 국립기상과학원은 서울·광주 등 8개 도시의 주요 꽃가루 유발 나무 9종과 잔디 등 식물 4종의 날림 시기를 분석한 ‘2025년 알레르기 유발 꽃가루 달력’을 발표한 바 있다. 기상과학원은 6년 만에 꽃가루 측정 달력을 갱신, 발표했다.

참나무 꽃가루는 광주·전남 전 지역(흑산도 제외)에서 위험지수 ‘높음’이었고 소나무 꽃가루는 목포·신안·흑산면 3곳이 ‘높음’ 단계였다.

꽃가루농도 위험지수는 ‘낮음·보통·높음·매우 높음’ 등 4단계로 나뉘는데, ‘높음’ 이상일 경우 알레르기 민감군에게 실질적인 증상이 발현될 수 있어 외출 자제 및 마스크 등 보호 장비 착용이 권장된다.

꽃가루농도도 치솟고 있다. 광주 은행나무와 밤나무의 1㎡당 연간 누적 꽃가루 수(누적농도)는 기

존(2007년~2017년)보다 이번 달력(2014~2024)에서 각각 2~3배 증가했다. 은행나무도 기존 107.40에서 384.10으로 3.5배 높아졌고 밤나무 꽃가루의 누적 농도는 기존 31.28에서 81.98로 2.6배 늘었다.

광주에서 4월 말~5월 초 가장 많이 날리는 꽃가루는 소나무로, 다음이 참나무였다. 소나무는 예년보다 꽃가루 날림 시기가 더 늘어났고 참나무의 경우 소나무 꽃가루 보다 비산량은 적지만 알레르기 유발성은 ‘매우 강함’으로 분류, 주의가 필요하에게 전문가 설명이다.

나윤자(여·71)씨는 “안그라돌 미세먼지 때문에 걱정인데 꽃가루까지 이렇게 날릴 때는 목이 따갑고 눈도 아프다. 집에서도 문을 열어놓으면 커튼, 가구 위까지 가루가 내려앉아 환기시키기도 어렵다”며 “황사까지 오면 진짜 숨막힐 것 같다”고 말했다.

조은주(여·49)씨도 “아이들이 어렸을때부터 꽃가루 알러지가 심해 애들이 눈 비비는 거 보고 붉어왔구나 깨닫는다. 눈이 붓고 충혈되기도 해서 2~3주에 한 번은 병원에서 먹는 약과 안약을 처방 받아 온다”고 말했다.

광주지역 병의원에도 알레르기 비염, 결막염 등으로 내원하는 환자가 급증했다.

북구 용봉동의 한 이비인후과의원 관계자는 “봄철에는 환자 수가 다른 계절보다 2~3배가량 늘어난다”며 “내원객이 많다보니 진료 대기 시간도 길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보성녹차 햃타 수확 24일 보성군 회천면의 한 다원에서 농민들이 햃타 잎을 따고 있다. 올해 햃타 수확은 4월 초 이어진 저온 영향으로 예년보다 다소 늦어졌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구제역으로 닫혔던 전남 가축시장 순차 개장

28일부터 순천·담양·고흥 등 7곳

전남도가 구제역 발생으로 폐쇄된 가축시장을 오는 28일부터 순차 개장하기로 했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28일부터 구제역 ‘주의’ 단계인 순천·담양·곡성·고흥·보성·영광·장성 등 7개 시군의 가축시장을 재개장한다. 다만 심각 단계 8개 시군에서 사육 중인 소는 거래 할 수 없다.

구제역이 발생한 영암과 무안을 제외한 6개 ‘심각’ 단계 시·군은 추가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다음달 5일부터 재개장할 방침이다. 이때도 영암

과 무안지역에서 사육중인 소는 거래가 불가하다.

영암과 무안 가축시장은 3km 방역대 내 이동제한이 해제된 후 재개장을 검토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가축시장 재개장에 앞서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가축시장을 방문하는 인력 및 차량은 거점 소독시설을 거쳐야하고, 차량의 경우 내외부 추가 소독을 해야한다.

전남도는 수의사를 배치해 가축시장에 나온 소를 임상검사하고, 주요 출입구에 발판 소독조를 비치하며, 운영 종료 후 청소·세척·소독을 철저히 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5·18-12·3 관통 심포지엄 개최 5·18기념재단 30일

5·18민중항쟁과 12·3 비상 계엄을 관통하는 국가폭력의 본질을 조명하는 심포지엄이 열린다.

5·18기념재단은 오는 30일 5·18 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서강국제한국학선도센터와 ‘해석의 영역에서 본 실제적 진실-5·18과 계엄’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연다.

심포지엄에는 ‘계엄을 통한 권력의 창출’(김준수 국가기록원 학예연구사), ‘5·18 전사(前死), 사전집 권음모의 실제적 접근’(차영귀 서강국제한국학선도

센터 책임연구원)이다. ‘5·18 광주지역 계엄군 작전 운용 분석’(노희준 국민대 정치대학원 겸임교수), ‘5·18항쟁과 헬기사격의 성격’(이태규 서강국제한국학센터 책임연구원)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또 ‘5·18항쟁이 제5공화국의 사회통제법에 미친 영향’, ‘광주재진입작전 기준 육군 교범 연구, 육군 폭동진압 교범의 변천사를 중심으로’ 등의 발표와 토론도 진행된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여전히 목줄 없이 다니는 개 동물보호법 개정된 거 맞나

동물보호법 개정안 시행 3년 ‘숨방망이 처벌’ 준수율 미흡
동물학대자 사육 금지법 시급
지도·단속 등 제대로 이뤄져야

동물보호법이 31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 시행 3년째를 맞았지만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는 높지 않아 맹견사육허가제 등도 본격 시행되지 않는 등 제감 효과가 높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 2022년 4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오는 27일로 시행 3년을 맞는다.

국회와 정부는 1991년 제정된 뒤 30년이 흘렀

지만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급증하는 반면, 향상된 동물보호 인식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동물보호법 개정에 나섰다.

특히 개정을 통해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맹견사육허가제, 민간동물 보호시설 신고제, 사육포기 동물 지자체 인수제 등을 담았지만 기대에 못 미친다는 게 동물단체 등의 분석이다.

맹견사육허가제의 경우 법 시행에도 1년 유예되면서 미뤄지고 있는 형편이다.

맹견허가제는 맹견 사육 시 기질평가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만 사육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맹견 사육주는 오는 10월 26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광주의 경우 최근 5년(2019~2023년)간 217건의 개물림 사고가 발생했고 전남에서는 781건의 사고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시는 신형한 맹견 12마리 중 4마리를 지난해 허가했고 남은 8마리는 올해 진행할 계획이다. 전남은 지난해 25마리가 맹견으로 등록됐다.

사육포기 동물 지자체 인수제에 따라 지자체가 인수한 동물은 법 시행 이후 지난 1월 말까지 8마리(개 6마리·고양이 2마리) 등이다.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목줄, 가슴줄 등 이동 장비 사용 의무화, 외출 시 잠금 장치 장착 의무화 등 반려동물 보호 관리 의무가 강화됐지만 여전히 공원 등에는 목줄을 채우지 않은 채 돌아다니는 반려견들이 적지 않다.

동물보호법상 강아지를 유기한 동물 학대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유예 처분으로 다시 동물을 키우는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는 게 동물보호단체 설명이다. 동물 학대 혐의로 처벌을 받아도 여전히 동물을 키울 수 있는 점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윤성모 동물권행동 카라 활동가는 “동물보호법 시행 3년째에 들어가면서 기존 제도에 빠진 사육 금지제 등을 추가하고 개정법이 제대로 시행되는 지 지도·단속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광주일보 

문화예술이 숨쉬는 곳, 목포·신안으로 초대합니다.



목포시청 직원 일동
신안군청 직원 일동
목포시의원 일동
신안군의원 일동
목포상공회의소 회원 일동

농협중앙회목포신안및관내농협 직원 일동
목포수산업협동조합 직원 일동
목포원예농업협동조합 직원 일동
목포농산물(주) 직원 일동
신안군수산업협동조합 직원 일동

신안군산림조합 직원 일동
목포농업협동조합 직원 일동
씨월드그속해리주식회사 직원 일동
(유)중앙환경 직원 일동
다산배아채 컨트리클럽(주) 직원 일동

목포시의료원 직원 일동
목포한국병원 직원 일동
목포중앙병원 직원 일동
목포기독병원 직원 일동
목포미즈아이병원 직원 일동